

# 주말 부부

Commuter couple



글 | 朴寅錫

(Park, In Suk)

토목시공기술사,  
평화엔지니어링 감리본부 부사장.  
E-mail : insukp-216@hanmail.net

대구시를 관통하는 금호강(琴湖江)에는 금호대교(중앙고속도로)가 있고, 그 하류에는 지천철교(경부선)가 있다. 이 두 교량 사이의 대구 제일교(사장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다.

나는 금년 초부터 이 공사의 책임 감리로 근무하게 되어 생각지도 않은 주말부부가 되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 가족들과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는 첫차를 타고 내려와 한 주간의 일과를 시작한다.

아내는 쌍춘년 황금 돼지해에 태어난 손자, 손녀들을 봐주느라 여념이 없어 남편이 난생 처음 객지 생활을 원룸에서 하는 데도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와보지 못했다.

지난 토요일은 아들 내외가 쉬는 날이라 아내가 큰마음 먹고 금요일 저녁 서울을 떠나 나를 찾아 대구로 왔다.

아내는 도착하자마자 걷어붙이고 5개월 동안 한 번도 닦은 적이 없는 싱크대와 오물로 얼룩진 화장실 변기를 말끔히 청소했다. 초라하고 비좁은 원룸이라 화려하지는 않아도 아내와 함께하는 하루는 오붓한 신방 못지않았다.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무덤기 전에 집 근처에 있는 계명대학교를 찾아 캠퍼스 내의 명소를 아내에게 구경시켜 주었다.

맨 먼저 아름다운 고향 같은 '계명 한학촌'을 찾아갔다. 이곳은 대구시민과 전 세계인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널리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옛날 집을 그대로 재현한 민속촌이다.

계명 한학촌에는 강학당(講學堂)인 계명서당(啓明書堂)과 계정헌(溪亭軒)으로 이름 붙인 양반 민가(民家) 한옥이 있었다. 풍류공간으로 사용되는 정자를 연못 가장자리에 지어놓은 정원(庭園)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 정원개념에 맞춘 배치와 형태를 그대로 살려놓아 인상적이었다.

정자에 올라 난간에 걸터앉아 연못을 내려다보니 하얗고 빨간 연꽃들이 연잎 사이사이에 피어 있고 창포 새파란 줄기가 연못가에 무성했다. 연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아내를 보니 마치 신혼여행이라도 온 기분이 들었다.

마침 관리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공휴일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계정헌 안으로 들어가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는 물론 옛날 선조들이 사용하던 가재도구들을 둘러볼 수

있어서 기뻐다.

교내를 돌아보고 나오다 보니 오늘밤 7시 30분 부터 한학촌에서 '2008 한여름 밤의 국악공연'을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나는 저녁에 그것을 보리라 생각하고 돌아왔다.

우리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급행좌석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달리며 시가지 구경을 했다. 동화사(桐華寺) 입구를 지나 종점에 내려 팔공산 케이블카를 타고 820미터 산정에 올라 오후 한나절 점동더위를 모르고 보냈다.

푸른 숲 멀리 내려다보이는 풍경과 정상 높이 우뚝 솟은 동봉과 서봉의 위용은 금강산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기이하게도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소낙비가 쏟아졌다. 비를 맞은 푸른 숲은 더욱 싱그럽고 청량감이 넘쳐 폭염 속에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자연을 즐길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을 놓친 우리는 학교 앞에서 김밥을 사들고 공연이 있다는 경천당(敬天堂)으로

향했다. 앞마당에는 관객을 위하여 배치한 간이의자가 있었다. 거기 부부가 마주앉아 김밥을 먹자니 한참 젊은 시절이 생각나고 젊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경천당 남쪽 계단 아래는 계명서당 출입문과 누각으로 사용되는 청송루(靑松樓)가 있다. 청송루의 1층 중앙에는 대문이 있고, 2층 누각에는 동서측으로 기둥 4개, 남북측으로 기둥 3개가 있는데 벽이 없는 마룻바닥을 공연무대로 삼은 것이 특이했다. 무대와 관객이 있는 마당의 높이가 엇비슷하여 관람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공연이 시작되자 김희경 현률 무용단장이 무대에 올라 "이번 공연에서는 흥고지무(興高之舞)라 하여 우리 민족의 기품과 흥 그리고 멋까지 표현해 보고자 한다."는 간단한 인사말이 있은 후 공연이 시작되었다.

맨 먼저 춘앵전을 보여주었다. 이 춤은 혼자 추는 춤으로 피꼬리를 상징하는 연돛빛 앵삼(鶯衫)을 입고, 화관을 쓰고 오색 한삼(汗衫)을 양손에 매고 추는 춤으로 매우 우아하고 미려하며 춤사



위가 다양해 좋았다.

두 번째 마당은 민속춤의 대표적인 살풀이를 보여주었다. 하얀 치마저고리에 고동색 옷고름을 한 세 명의 무용수가 오른손에는 하얗고 긴 수건의 중간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북, 징, 장고, 피리소리에 맞추어 구성진 목소리가 심금을 울렸다.

세 번째 마당은 나라의 태평성대와 풍년을 기원하는 태평무를 보여주었다. 징, 장고, 가야금 등의 악기소리에 맞추어 춤 동작이 섬세하고 특히 발 디딤이 독특하고 다양했다. 푸른 치마, 연두색 당의(唐衣)를 입고 추는 능숙한 춤사위가 일품이었다. 붉은 색 솟치마를 살짝살짝 내보이며 무대를 넓게 돌며 느리다가 빠른 춤과 장단이 흥을 돋우었다.

그날따라 남쪽 하늘에 반달이 중천 높이 떠올라 은은한 빛을 뿌리니 공연장 분위기가 꿈결인 양 그윽했다.

네 번째 마당은 무거운 입을 벗는 과정과 속세와의 결별 그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희열을 유려한 선에 나타내는 정중동(靜中動)의 춤사위를 표현한 승무(僧舞)를 보여주었다. 흰옷 무용단장이 코발트색 치마와 흰 장삼(長衫)을 입은 위에 붉은 띠를 어깨에 걸치고, 하얀 고깔을 쓴 차림으로 마룻바닥에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춤을 아주 느리게 시작했다. 긴 옷소매 안으로 북채를 잡고 휘두르기도 하고, 장중한 음악에 맞추어 북채를 드러내어 높게 받쳐놓은 북을 치기도 했다.

나는 90년대 초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 국악원에서 개설한 저녁 승무 반에 등록하여 기초를 약간 배운 적이 있다. 그 당시 우리 반에는 40여 명의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사십대 초반인 내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 승무 도구로 구입했던 하얗고 긴 수건을 휘두르던 기억이 어제인 듯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부채산조와 소고, 반고, 장고춤을 보여준 다음 피날레로 전체 무용단원이 단상에 올라 화려한 춤사위를 보여 주었다. 관람료는 없었으며, 백여 명의 지역 주민과 유지 그리고 산새들이 모여 앉아 화려한 축제의 밤을 수놓았다.

술숲 속에 고즈넉하게 지은 계명 한학촌에서 전통 한옥의 정취를 한껏 누리면서 소리와 춤의 신명으로 무더위와 세상사에 지친 심신의 활력을 되찾아 대구에서의 우리 주말 부부는 행복한 하루를 뜻있게 보낼 수 있었다.

(원고 접수일 2008년 7월 25일)

